

20

부산시립극단 제32회 정기공연

연기가 눈에 들어갈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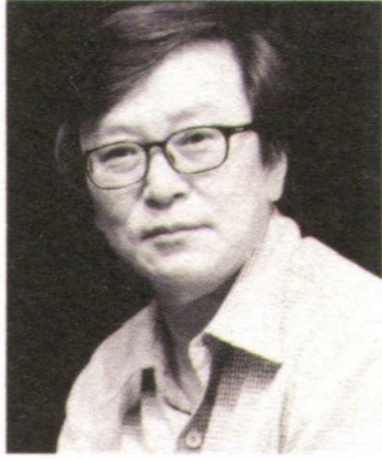
■ 쓰쓰미 야스유키(堤 泰之) · 원작 ■ 김 순 영 · 번역 / 각색 ■ 오 정 국 · 연출

2008. 6. 5(목) - 6. 7(토)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목 오후 7시 30분 / 금·토 오후 4시

부산시립극단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채 윤 일 / 부산시립극단 수석연출

부산 관객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4월 부산시립극단 수석연출로 새로 선임되어 서울에서 내려온 채윤일입니다.

먼저 지면상으로나마 인사 올리겠습니다.

부산시립극단이 생긴지 10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 동안 제가 관람했던 부산시립극단 작품은 2편이었습니다. 8~9년 전 쯤 일겁니다.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본 부산시립극단 작품 '셰익스피어'의 비극 <리어왕> 그리고 지난 해 밀양 여름연극축제에 초청되었던 '몰리에르'의 희극 <수전노>.

이 두 편 연극의 질적인 차이는 너무나 컸습니다. <수전노>를 관람하면서 예전 서울 연극인들을 놀라게 했던 <리어왕>의 열정, 패기, 우수한 연기력 등은 다 어디로 사라지고 이렇게 무기력 해 졌을까? 그래서 제가 밀양연극제를 주관하는 이윤택 선생에게만 『부산시립극단이 왜 이렇게 됐지요?』하고 물어봤을 정도였습니다. 막상 부산에 내려와 일 개월 쯤 근무해 보니까 왜 <수전노>라는 부산시립극단의 연극이 그 지경이 되었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부산시립극단은 변해야 합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급격한 개혁이나 쇄신은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연착륙이 필요합니다. 흔히들 예산을 타령하는데 예산을 타령하기 전에 사람들이 변해야 합니다. 예산이 많다고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산보다 중요한 것은 작품에 참여하는 인력들의 연극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능력입니다. 연극인들이 연극을 사랑하지 않고 홀대하는데 누가 연극을 사랑하겠습니까? 우리는 부산 시민들이 낸 세금을 급여로 받고 있다는 사실을 한 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정치인들이 자주 입에 올리듯 '혈세'를 봉급으로 받고 있는 연극인들입니다. 무서운 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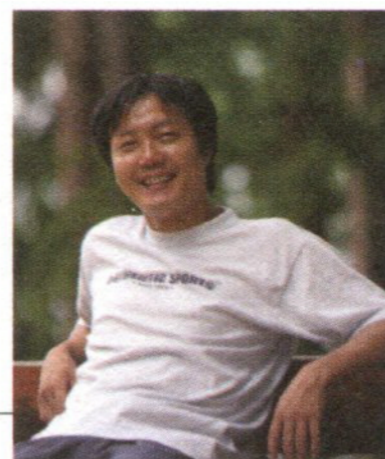
제가 부산에 내려오기로 결심을 했을 때의 첫째 목표는 35세 전후의 차세대 연출가와 극작가를 발굴, 육성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18년 전 제가 이윤택 선생에게 희곡쓰기를 권유하고, '연희단거리패'를 서울로 초청하여 공연하였듯이 '제 2의 이윤택'을 발굴 해 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술방망이처럼 '이윤택' 나와라 뚝딱 한다고 '제 2의 이윤택'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노력만이라도 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세계사를 주도 해 나가고 변혁을 가져온 것은 연출가와 극작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극작가와 연출가는 참신해야 하고 배우는 노련하고 우리말을 올바르게 구사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실 <연기가 눈에 들어갈 때>를 연출한 오정국씨는 앞으로 부산 연극계를 이끌고 나갈 차세대 선두주자라고 소개 받아서 제 부임 첫 작품 연출을 의뢰했습니다. 저도 오정국씨가 연출한 작품 <연기가 눈에 들어갈 때>가 몹시 궁금합니다. 좋은 작품이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오정국씨가 사실적이고 감동적인 휴먼드라마를 선택했기 때문에 저는 10월 말에 신선한 문화적 충격을 여러분에게 선사하려고 합니다.

부산시립극단에 많은 사랑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편달과 함께요.

그럼 좋은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 정 국 / 객원연출

부산 연극제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죽은 혼령들을 다룬 작품들을 많이 접한 듯하다. 이 작품 속에도 혼령이 나온다. 그러나 삶과 죽음의 문턱에서 갈등하거나 복잡한 인간관계를 보여주는 작품은 아니다.

다만 있음직한 이야기, 그냥 생각만하고 지나쳤을 상황들 그런 화장터의 풍경을 통해 가족들과 주변사람들의 따뜻한 시선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을 통해서 과장하진 않았지만 코믹하게 그리고 우리의 정서가 묻어나는 담백함으로 관객과의 소통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그렇게 되면 어찌다 눈물 나기도 하고 때로는 웃음보가 터지는 상황으로 관객들에게 재미와 잔잔한 감동으로 이어질 것이라 믿는다.

그러다 문득 일상적이지만 결코 일상적일 수 없는 화장터를 보며 '우리는 무엇을 태우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 라는 물음을 안고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극단 [시나위] 단원, 상임연출.

2001 제19회 부산연극제 <문제적인간 연산> (대상) -조연출

2001 극단 [시나위] 정기공연 <펠리칸>

2001 제5회 전국 주부연극제 극단 [그루터기](우수상)

2002 마산 국제연극제 초청 <펠리칸>

2002 부산대 무용과 강미리 교수 공연 <태>

2003 극단 [시나위] 정기공연<왕자>

2003 제21회 부산연극제 극단 [시나위]<검정고무신>

2004 제22회 부산연극제 <인류최초의키스>(대상, 연출상)

2004 부산대 무용과 강미리 교수 공연 <류>

2004 제1회 부산국제연극제<배비장전>

2005 제23회 부산연극제 <BC2430>(대상, 연출상)

2005 부산 시립극단 <길 끝에서>

2006. 극단 시나위 정기공연 <아프리카신드롬>

2007. 제25회 부산연극제 <얼굴없는피카소>(연출상)

2007. 부산시립무용단 정기공연 <이쁜이시집가는날>

2007. 극단 동서레파토리 <달빛유희>

2007. 부산예술제 <얼굴없는피카소>

2007. 6대광역시교류전 <얼굴없는피카소>

작가소개...

쓰쓰미 야스유키(堤 泰之)

- 1960년 출생. 아이치현 출신. 동경대학 교육학부 중퇴
- 1978년부터 1990년에 걸쳐서 “네버랜드 뮤지컬 커뮤니티”에서 오리지널 뮤지컬공연.
- 1991년 푸라치나 페파츠를 설립. 연극, 뮤지컬의 각본, 연출을 중심으로 활동함.

주요활동 : [레벨 시스템]이라는 독자의 프로듀서 형태로 연극제작을 하고 있음.
호텔의 방 하나를 무대로 한 남녀의 2인 연극 [피카레스크 호텔]

별 책 : 宝島の 시리즈를 원작으로 한 학교 선생님들의 악전고투를 묘사한[중학교사], 여러 개의 영화상을 수상한 걸작 영화[벚꽃정원]을 무대화 하였고 많은 배우들에게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오디션 프로젝트“라후카트”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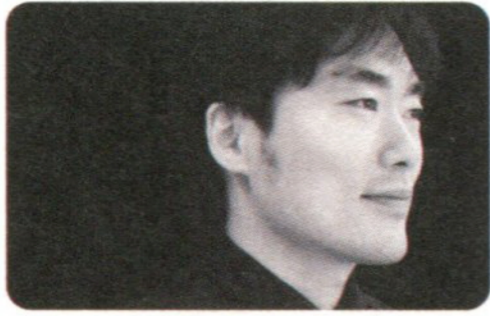
작품 줄거리...

벚꽃이 만발한 어느 봄날의 화장터에 흰 수의를 입은 두 남자가 각자 소파에 앉아 꽃잎이 부서지는 바깥세상의 풍경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다. 이들은 급작스런 사고로 죽음을 맞이한 김진우와 기영식이다. 자신들의 육신이 태워지기를 기다리며 못내 아쉬운 듯 이승에서의 마지막 이야기를 나눈다. 이것 또한 인연이 되어 아득하고 긴 여행이 될지도 모르는 저승길의 길동무가 되기로 한다. 한편, 김진우와 기영식의 유족들은 고인의 관이 가마 속으로 들어가자 슬픔에 잠긴다. 잠시 후 김진우의 유족들은 문상객들의 점심을 챙기느라 분주하지만 기영식 쪽은 문상객들이 없어 조용하다. 이때, 불에 그을린 수의를 입은 김진우와 기영식은 대기실로 와 서로의 가족을 소개하며 주위를 맴돈다. 뜻밖에도 치매를 앓고 있는 김진우의 어머니를 만나고 죽은 사람을 볼 수도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는 사실을 알게 된다. 어머니를 통해 김진우는 아내와 자식들에게 그동안 하지 못한 말들을 하고 고마움을 전하고, 기영식도 자신의 딸과의 오해를 풀고 용서와 화해를 하고, 나이 어린 연인 과도 마지막 이야기를 나눈다.

이제 두 사람의 육신은 타서 재가 되어 버리고....

두 가족은 화장터에서 작별의 사진을 한 컷 찍는다.





유 성 주(부수석단원)/김진우



이 돈 희 / 기영식



정 행 심 / 할머니



이 현 주 / 박정미



임 해 련 / 김진숙



이 혁 우 / 마동일



김 은 희 / 기선자



염 지 선 / 강미희



엄 준 필(비상임단원)/김경훈



백 상 희(비상임단원)/김경희



박 찬 영(부수석단원)/저승길잡이



황 창 기 / 교상수



백 길 성(비상임단원)/최근배



무대감독 / 정순지

음악 / 전현미, 의상 / 허종오, 조명 / 김철현, 무대 / 황경호, 분장 / 박은주, 사진 / 하지윤